

기아, 연식 변경 '더 2025 쏘렌토' 출시...판매 1위 굳힌다

전 모델에 안전·편의사양 확대...블랙 스위트 내장재 기본화 상품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권 넓혀...가격 3600만원대부터

기아 쏘렌토가 연식변경 모델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인 쏘렌토는 상품성을 개선한 연식변경 모델 출시로 판매량 1위 굳히기에 나섰다.

기아는 2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쏘렌토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5 쏘렌토'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The 2025 쏘렌토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고급 안전·편의사양을 확대해 차량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먼저 신규 사양인 스티어링 휠 진동 경쇠(햅틱)와 선바이저(햇빛 가리개) LED 조명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또 고객들이 선호하는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전자식 트렁크)를 가장 낮은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기본 사양으로 추가했다.

이외에도 전 모델에서는 선택 사양으로 운영되던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첨단 편의 사양을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 적용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그니처 트림부터 적용됐던 디지털 센터 미러(DCM)를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2025년형 쏘렌토는 고급스러움도 더했다. 디자인이 특화된 시그니처 그라비티 트림에는 전용 색상인 적용된 도어 사이드 가니쉬를 추가하고 검정색 스위트 내장재를 기본 적용해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The 2025 쏘렌토의 판매 가격은 36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2.5 가솔린 터보 모델은 ▲프레스티지 3605만원 ▲노블레스 3891만원 ▲시그니처 4202만원 ▲그라비티 4291만원이며, 2.2 디젤 모델은 ▲프레스티지 3778만원 ▲노블레스 4064만원 ▲시그니처 4375만원 ▲그라비티 4464만원이다.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2WD 모델은 ▲프레스티지 3885만원 ▲노블레스 4181만원 ▲시그니처 4464만원 ▲그라비티 4553만원이다. 하이브리드 4륜 모델은 ▲프레스티지 4260만원 ▲노블레스 4557만원 ▲시그니처 4840만원 ▲그라비티 4929만원이다.



기아는 쏘렌토 연식변경 모델 출시로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쏘렌토는 올해 1~7월 국내 출시된 차종 중 가장 많은 5만7184대 팔렸다. 연말까지 판매량이 이어진다면 기아 브랜드 최ю이자 SUV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한 해 판매량 1위에 오르게 된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팔린 차종은 항상 현대차였다. 2000~2010년 현대차 쏘나타가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국내 판매 1위 자리는 2011~



국내 완성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쏘렌토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5 쏘렌토' 내·외관. (기아 제공)

2013년 같은 회사의 아반떼가 넘겨받았다. 2014~2015년에는 쏘나타가 다시 이 자리를 탈환했다.

2016년엔 현대차 상용차인 포터가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고, 2017~2020년 현대차의 세단 그랜저가 1위 자리를 꿰찼다. 2021~2022년은 포터가, 지난해에는 그랜저가 베스트 셀링카였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 쏘렌토는 RV 차종 중 처음

으로 상반기 국내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월간 판매 1위도 놓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식변경 모델은 고객 선호 사양을 추가하고 트림별로 첨단 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더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향상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RV 1위를 넘어 국내 베스트셀링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2025 싼타페' 출시... '현대 스마트센스' 기본화

편의·안전 사양 확대 적용

현대차는 2일 국내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디 올 뉴 싼타페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5 싼타페' <사진>을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2025 싼타페는 편의·안전 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과 옵션 패키지 등을 도입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대차는 '현대 스마트센스'를 기본화해 중형 SUV에 걸맞은 안전성을 강조했다.

현대 스마트센스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으로 구성됐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기본 적용된다. 새로 추가된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반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 주차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됐다.

2025 싼타페의 엔트리 트림 익스클루시브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커브D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디지털키2, 듀



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이 탑재됐다.

현대차는 또 20인치 휠과 타이어를 2025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모델에도 추가했다. 해당 모델 복합 연비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준을 충족한다. 이 외에도 공조 디스플레이상 열선과 통풍 시트 버튼을 분리하고 실내에 소화기를 탑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5 싼타페는 현대차의 대표 패밀리카답게 주력 트림에 현대 스마트센스를 기본 적용했다"며 "고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하이브리드 2WD 모델에도 20인치 휠을 추가하는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중대형 트럭 시장 석권 감사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상반기 국내 중·대형트럭 판매 1위 달성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마이티, 파비스, 뉴파워트럭, 엑시언트 등 중대형트럭을 새롭게 계약하거나 아직 출고전인 계약자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현대차는 계약 고객 1111명을 선정해 ▲GS주유상품권 100만원(11명) ▲오르리 선글라스(50명) ▲보바 휴대폰 거치대(150명) ▲유투스 요소수(900명)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며, 추첨 결과는 11월 중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2024 엑시언트 프로(XCIENT PRO)' 덤프는 상반기 국내 대형 덤프트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처음으로 달성하며 상반기 중대형트럭 시장을 석권했다.

'2024 엑시언트 프로'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승차감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차체 및 일반 부품, 적재함의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독일 이스리(ISRI)의 프리미엄 운전석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가능하고 전축 에어 서스펜션을 추



대형 트럭 '엑시언트 프로(XCIENT PRO)'.

가해 동급 최고 수준의 승차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GM, 9월 한달간 차량 구매 고객에 추석 귀성비 50만원 지원

차량 할인 '스페셜 페스타' 운영

KGM이 9월 한달 간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귀성비 지원과 차량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티볼리와 코란도, 토레스 EVX 구매 고객과 택시(토레스 EVX, 토레스 바이퓨얼, 코란도 EV) 모델 구입 고객에게 귀성비 50만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시불로 택시 모델 및 렉스턴 브랜드 모델을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스페셜 페스타'도 지속 운영한다. 티볼리와 토레스 EVX(밴 포함) 소비자에게 50만원, 코란도 구매고객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더 뉴 토레스 구매자는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100만원 상당)과 귀성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렉스턴 스포츠&칸 구매고객에는 4WD 시스템(200만원 상당)을, 렉스턴과 티볼리 에어 역시 각각 최대 150만원과 2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월 할부금 부담을 덜어주는 'KGM 중고차 보장 할부'도 지속 운영하는 등 차종별 고객 맞



KGM 액티언.

춤 구매 혜택을 마련했다. 또 티볼리 혹은 코란도 보유 고객이 더 뉴 토레스를 구입하면 20만원, 전기차 보유 고객이 토레스 EVX 및 토레스 EVX 밴을 구입하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렉스턴 보유 고객이 렉스턴 써밋(Summit)을 구입하면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101만원)을 무상

장착해 준다.

KGM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구매 시 10~20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판매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GM 홈페이지(www.kg-mobility.com)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대리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아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 개소

에콰도르 수도에 전기차 문화센터

기아는 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전기차(EV) 복합 문화센터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를 열었다. <사진>

지상 1층 연면적 1420㎡(약 430평) 규모로, 중남미 권역 고객에 기아의 기술 혁신과 자연친화적 삶에 기여하는 전동화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기아는 에콰도르 시장에서 승용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복합 문화센터 개소를 통해 에콰도르를 지역 내 '전동화 선도 국가'로 낙점하고, 기아의 선두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외관에는 꽃의 성장과 암석의 형성, 자연 요소(물, 공기)의 움직임에서 발견되는 피보나치 나선 디자인을 적용했다. 내부는 플래닛, 에너지, 모빌리티 등 3개 테마 존으로 구성해 총 19개의 콘텐트를 제공한다.

플래닛 존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 오션 클린업 가상현실(VR) 게임 등으로 기아의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체험공간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전시하고,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V2L 등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공간에서는 전기차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기아 브랜드 히스토리 월과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PBV) 홍보 부



스를 설치해 미래 전기차 시장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이수영 기아 중남미권역본부장(상무)은 "고객이 환경 보호에 대한 영감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위한 기아의 친환경 기술력과 전동화 비전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4 렉서스 마스터즈' 성황리 마무리

18언더파 이승택 초대 챔피언

렉서스코리아가 개최한 KPGA 정규 투어 '2024 렉서스 마스터즈(2024 LEXUS MASTERS)'가 막을 내렸다.

우승자는 4라운드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이승택으로 공동 2위 그룹을 5타차로 따돌리고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이승택에게는 우승 상금 2억원과 트로피, 우승 부상으로 세라믹 고급 휴식 가전 패키지가 전달됐다.

렉서스코리아가 KPGA투어 신설 대회로 첫선을 보인 '2024 렉서스 마스터즈'는 총상금 10억원, 우승상금 2억원 규모로 국내 유명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렉서스코리아는 대회기간 경

가장 곳곳에 플래그십 MPV 모델인 LM 500h를 비롯해 다양한 차종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렉서스코리아는 또 대회가 열린 경남 양산 에이원CC 인근의 골프 특성화 학교인 좌상초교 골프 꿈나무 24명을 초청해 특별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진>

권아마 마나부 렉서스코리아 사장은 "렉서스 마스터즈의 첫 번째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초대 챔피언 이승택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직접 대회장을 찾아주시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갤러리 분들과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 모든 대회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